

2. 사업체형태 분포

2009년 국내 만화산업 사업체형태는 회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고, 회사외법인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 국내 만화사업체형태 분포를 살펴보면, 회사법인 형태가 전년대비 1.7% 증가한 전체의 62.3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개인사업체 형태는 전년대비 0.2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2009년 국내 만화사업체 중 개인사업체 형태의 비중은 34.5% 였다.

<표 3-1-5> 만화산업 사업체형태 분포

(단위: %)

진출 경로 구분	2007년 (N=226개)	2008년 (N=380개)	2009년 (N=351개)	전년대비 증감
개인사업체	32.9	34.3	34.5	0.2
회사법인	60.5	60.6	62.3	1.7
회사외법인	6.6	5.1	3.2	▽1.9
합계	100.0	100.0	100.0	-

한편 회사외법인 형태의 비중은 2009년 전체 만화산업 사업체형태의 3.2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회사외법인 형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만화사업체형태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.

<그림 3-1-3 > 만화산업 사업체형태 분포

(단위: %)

